

3.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1) (4월 10일 10년)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 한 주일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 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30: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序;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미 들은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이름을 모른다. 그러나 장성하여서는 부모의 이름을 알고 기억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름은 그의 신분이요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기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이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이유와 이름의 뜻도 알고 있게 된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부모가 누군지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가 섬기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하는 계시된 이름이며, 동시에 그분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다. 이제 그 이름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성경에서 들어보도록 하자.

1. 하나님이라는 칭호

[시50:7] 내 백성이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다. 이것은 복수이다. 단수로는 “엘, 엘로하”이다. 이 말의 뜻은 “능력 있는 자, 두려워할 자” 등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다. 경외해야 할 분임을 나타낸다. “엘로힘이란 어형이 히브리어에서만 나올 뿐, 다른 셈어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성경 아람어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엘로힘이 삼위일체 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의 명칭인 것을 확증해 준다고 생각된다.”

엘로힘이라는 칭호는 구약성경에 2,600번쯤 나온다. 그 중에는 재판장을 뜻하는 데도 있고, 천사들을 가리키는데도 있고,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도 있다. 이방신들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엘로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의 신, 에돔 사람들의 신 이렇게 부를 때 그 신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고 한 것이다.

이 칭호 엘로힘은 복수형이다. 성경의 하나님을 가리킬 경우에 이 말을 받는 동사들은 거의 다 단수이다. 즉 복수 주어에 단수 동사를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일체되심을 잘 나타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창1:1도 그렇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창조하시니라는 단수 동사 바라이다. 그러나 때때로 동사를 복수로 사용한 곳도 있다. 그것은 또 삼위께서 개별적으로는 복수 존재이심을 나타내 주는 기록이다. 창1:26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을 때 “만들고”가 복수 동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을 때 창조는 모두 단수이다. 이런 기록 법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유일하심을 잘 드러내는 기록들이다.

그러나 엘로힘은 성경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신이라는 일반 명사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그분만이 가지신 이름은 여호와이다.

2.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잠30:4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짠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는 여호와이시다. 그 아들의 이름도 여호와이시다. 그 아들은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을 때에는 예수이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다. 구약성경에는 종종 “여호와와 사자”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다. 출3:1~6을 읽으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사자”라는 말은 때때로 천사라고 번역된다. 히브리말로는 “말아키”이다. 출애굽기의 이 장면을 자세히 읽으면 떨기 나무 불꽃 중에 나타나신 여호와와 사자가 바로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출23:20,21]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와 사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분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물론 성령도 여호와이시다. 이 문제는 삼위일체 교리에 속하는 것이다. 이 시간에 말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로 미루기로 한다.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불레셋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은 다곤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쉽게 비유로 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에 해당되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명박이라는 이름에 해당된다고 비유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출3:13~15]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시내산 아래 떨기나무 불꽃 중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와 사자는 모세의 질문에 대답하신다. 그분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름의 뜻을 먼저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3. 여호와 “있는 자”라는 뜻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간단히 말하면 “있는 자”라는 뜻이다.

군대 있을 때, 서울대 문리대 중국문학과 출신과 같이 근무했다. 만나면 대화가 통했다.

나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는 불교 이야기를 했다.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이 병장은 불교에 조예가 깊은 것 같은데, 불교교인이요?”

“불교교인은 아니라도, 중국문학을 하면 불경을 읽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알게 되었지.”

“그러면, 불교 교리를 한 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소?” 그는 뜬금없이,

“글쎄, 한 마디로 말하면, 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 보다 더 깊은 것은 없소?”

“그보다 더 깊은 것이라면 무무라고 할 수 있겠소.”

무, 없다. 없어져라. 나는 이 말을 듣고 오래 전에 읽었던 오상순 시인의 “짜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는 수필 생각이 났다. 거기서 바로 이 무에 대한 사상이 질게 배어 있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곳에 라는 표현이 생각났다. 없다. 없어져라 이것이 가장 깊은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교리라고 하면 인간 존재가 참 허무하다.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무라는 개념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병장은 나에게 물었다.

“김 병장,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를 한 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요.” 나는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그것은 있다, 있으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있는 자’라는 뜻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생각해보라. 있다. 있으라. 얼마나 가슴 부푼 사상인가! 스스로 있는 자. 참 얼마나 멋지고 짝 찬 이름인가. 우리는 진짜로 없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진짜로 없는 경험을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있는데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있는 것의 근원이 바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 이름의 이런 뜻을 아는 것은 그분을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능력의 보장이 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시9:10]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자들이라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망대와 같은 것이다.

[잠18:10]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다윗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시124:8]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우리의 모든 도움이 있다.

[시91: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높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 이름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호소한다.

[호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하셨다.(호4:6) 물론 여기 지식은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 그러나 6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포함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한다.

4. 기념 칭호

성경은 이 칭호를 기념칭호라고 계시한다.

[호12:5]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출3: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

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기념칭호,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는 같은 말이다. “제케르”라는 말이다.

기념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안다. 그것은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하는 것이다.

기념사진, 기념품, 이런 것들은 거기 담긴 어떤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무엇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거기에는 적어도 네 가지 기념해야 할 사실이 들어있다. 이것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깊은 진리이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자. 아마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어쩌면 그 다음 시간까지 살펴봐야 할는지 모른다.

1) 존재양식의 기념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다.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누군가가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있다. 즉 우리의 존재 원인은 나 이외의 존재에게 있다는 말이다. 부모님이 우리 존재 원인이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존재 원인과 존재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외의 어떤 것을 의지하여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자기에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버트란트 러셀이 질문한 말이다. 오래 전에 그가 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다. 그 책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을 들은 소년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아주 두려운 표정으로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대답을 했다. 이것이 자기의 경험인지 그의 동무의 경험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모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불가지론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성경이 가르쳐준대로 대답하면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라고 물을 수 있다. 어떻게 대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만일 누군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든 그가 하나님이지. 스스로 계실 수 없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스스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적 대답이요, 정확한 대답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기억하여 기념하게 한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계신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믿음이다. 이 이름을 알고 있는 한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것이다. 동시에 나는 결코 스스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것이 존재 양식의 기념이라는 말이다. 이 이름에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온다. 개역성경에 이 말씀만 26번 나오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까지 합하면 70번 이상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선포하실 때 당신의 신분과 권위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다. 거룩한 이름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누었다.

[겔36:21]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 가사이다.

[사6:2,3]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계4: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거룩하다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듣기를 기뻐하시는 찬송 가사인 것 같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다르다”는 뜻이다. 무엇과 구별되었으며 무엇과 다르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존재성이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거룩하고 그 존재가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기억하고 부를 때에 그분의 존재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와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경배해야 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